

相馳? 相同?

—『百寶總珍集』과 『雲麓漫鈔』에 보이는 南宋官窯 관련 기록의 再檢討

이 희 관 *

- I. 문제의 제기
- II. 『百寶總珍集』 靑器條의 “新窯”와 修內司
- III. 『雲麓漫鈔』에 보이는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의 신해석
- IV. 나머지말 — “自燒” 의미의 재음미

I. 문제의 제기

많은 연구자들은 남송관요와 관련된 송대의 문헌 가운데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고 아울러 풍부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葉寔가撰한 『坦齋筆衡』을 꼽는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 『탄재필형』은 온전히 남아 있지 않고, 그 내용의 일부가 元末明初에 陶宗儀가 찬한 『說郛』나 『南村輟耕錄』에 採錄되어 전해오고 있다. 남송관요와 관련된 내용은 후자에 실려 있다.

(A) 宋葉寔『坦齋筆衡』云……中興渡江, 有邵成章提學後苑, 號邵局, 襲故京遺製, 置窯于修內司, 造靑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油色瑩徹, 爲世所珍. 後郊壇下別立新窯, 比舊窯大不侔矣. 餘如烏泥窯·餘杭窯·續窯, 皆非官窯比. 若謂舊越窯, 不復見矣¹

* 前 湖林博物館

¹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卷29 窯器(中華書局, 1959), pp. 362-363: “宋葉寔의 《坦齋筆衡》에 말하기를, “……宋이 南遷한 후, 邵成章이 提學後苑이 되어, 邵局으로 칭하였는데, 故京의 遺制를 이어서,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 靑器를 제작하여, 內窯라고 이름하였다. 잘 수비한 흙으로 成形하여 극히 精緻하고, 釉色이 瑩徹하여,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다. 후에 郊壇下에 별도로 新窯를 세웠는데, 舊窯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그 밖에 烏泥窯·餘杭窯·續窯 같은 것들은 모두 官窯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혹 옛 越窯를 일컫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탄재필형』에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자세한 편이다. 남송관요의 설립과 관련하여 『탄재필형』이 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邵成章이 後苑, 즉 邵局을 提學하고 있을 때 修內司에 요장을 설립하였으며, 그것을 內窯로 불렀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修內司官窯로 부르는 남송관요가 바로 이것이다. 수내사관요의 설립과 관련하여 각별히 소성장과 후원(소국)을 언급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와 그가 提學한 후원이 수내사관요의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수내사에 요장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내사는 그 요장의 설립에 별다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수내사관요의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성장이 邵諤의 착오라고 믿고 있는데,² 소성장과 소악이 동일인일 것이라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다.³ 수내사관요의 설립에 있어서 소악과 후원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수내사관요의 설립시기는 紹興 32년(1162)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악은 그 해에 파직당한 후 다시는 관직 자체에 발을 들여 놓은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⁴ 한편, 수내사관요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탄재필형』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남송의 도성인 臨安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시기에 수내사와 그 관할 아래에 있던 여러 修內司營들이 모두 임안에 있었기 때문이다.⁵ 결국 『탄재필형』에 따르면, 남송의 조정은 남송초기에 해당하는 소흥 32년(1162) 이전에 임안에서 남송관요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둘째, 수내사관요를 설립한 이후에 郊壇下에 또 다른 새로운 남송관요를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이 요장의 본래 명칭은, 수내사관요와 마찬가지로, 內窯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⁶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흔히 교단하관요로 부른다. 하지만 수내사관요와 마찬가지로 교단하관요의 설립에 있어서도 소악과 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탄재필형』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저술된 『百寶總珍集』에는 이와 相馳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의 卷9 靑器條가 그것이다.

2 李民學, 「宋官窯論稿」, 『文物』 8期(1994), p. 49.

3 傅振倫, 『《陶說》譯注』(輕工業出版社, 1984), p. 76.

4 邵諤의 관직활동에 대해서는 李民學, 앞의 논문, p. 49 참조.

5 남송시기의 수내사와 수내사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李喜寬, 「南宋前期官窯新探」, 『東方博物』 35輯(2010a), pp. 30-33; 「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 3期(2009), pp. 11-20 참조.

6 李喜寬, 「北宋官窯與“京師”及“惟用汝器”—北宋官窯研究序說」, 『故宮博物院院刊』 5期(2010b), p. 66.

(B) 汝窯土⁷脉偏滋娟, 高麗新窯皆相類,

高廟在日曛直錢, 今時押眼看價例.

汝窯土脉滋娟, 與高麗器物相類, 有鷄爪紋者認真, 無紋者尤好. 此物出北地. 新窯, 修內司自燒者. 自後僞者, 皆是龍泉燒造者.⁸

『백보총진집』은 총 100가지의 진귀한 물건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모든 항목이 칠언절구一首와 그 시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찬자는 전해지지 않지만, 남송 후기에 도성인 임안의 어느 골동상인이 찬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이 靑器條(사료B)에서 남송관요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주석에 보이는 “新窯, 修內司自燒者”이다.

이 대목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自燒”를 주요 근거로 하여 “新窯”는 수내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¹⁰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였다면, 이 요장을 설립한 주체도 응당 수내사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¹¹ 말하자면 “自燒”는 “自置窯燒造”의 의미가 되는 셈이다.¹² “新窯”는 필경 新窯라는 요장에서 소조한 자기를 가리킬 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요는 『탄재필형』에 보이는 “後郊壇下別立新窯”의 “新窯”와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가 특정한 요장을 가리키는 명칭인 반면,¹³ 후자는 특정한 요장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舊窯와 대응되는 의미로서 그저 “새로운 요장”이라는 뜻이다. 『백보총진집』에 보이는 신요자를 구체적으로 어느 요장에서 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그

7 北京大學圖書館藏清抄本에는 “土”가 “土”으로 되어 있는데([宋]佚名, 『百寶總珍集』卷9 靑器, 北京大學圖書館藏清鈔本,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第78冊(齊魯書社, 1995), p. 809), 아래의 註釋에 “汝窯土脉滋娟”이라고 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土”를 잘못 옮긴 것이 분명하다.

8 [宋]佚名撰, 앞의 책, p. 809: “汝窯瓷器는 土質이 매우 좋으며, 高麗瓷器和 新窯瓷器가 모두 같은 부류이다. 高宗代에는 값어치가 매우 높았는데, 지금은 잘 살펴보고 그 값어치를 헤아려야한다. (汝窯瓷器는 土質이 좋고, 高麗의 기물과 같은 부류이다. 鷄爪紋이 있는 것은 眞品으로 인정하고, 문양이 없는 것은 더욱 좋다. 이 기물은 北地에서 나온다. 新窯瓷器는 修內司自燒者이다. 이후의 假品는 모두 龍泉에서 燒造한 것이다. ()안은 주석)”

9 『百寶總珍集』과 그 撰者에 대해서는 李仲謨, 「汝窯史料研究二則」, 『中國古陶瓷研究』7輯(2001), pp. 74-75 참조.

10 李仲謨, 앞의 논문, p. 76; 劉未, 「邵諤, 王晉錫與修內司窯」, 『故宮博物院院刊』5期(2010), p. 125.

11 劉未도 그렇게 이해하였다. 劉未, 앞의 논문, pp. 125-127 참조.

12 [元]陶宗儀撰, 앞의 책, p. 363: “政和間, 京師自置窯燒造, 名曰官窯.”

13 李仲謨, 앞의 논문, p. 76.

것이 남송관요의 범주에 속한 요장이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다.¹⁴ 이는 결국, 이제까지의 이해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는 수내사가 설립·운영·관리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언급한 『탄재필형』에 보이는 남송관요 관련 기록(사료A)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다. 『탄재필형』에는 수내사가 단지 수내사관요가 설치된 장소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탄재필형』과 『백보충진집』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착오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면,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

한편, 『탄재필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된 또 다른 문헌에도 『탄재필형』의 내용과相馳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 실려 있다. 趙彥衛의 著述인 『雲麓漫鈔』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 그것인데, 이 책은 開禧 2년(1206)에 成稿되었다.¹⁵

(C) 青甃器, 皆云出自李王, 號秘色, 又曰出錢王, 今處之龍溪出者色粉青, 越乃艾色. 唐陸龜蒙有進越器詩云, 九秋風露越窑開, 奪得千峰翠色來, 好向中宵盛沆瀣, 共嵇中散鬪傳杯, 則知始於江南及錢王均非也,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¹⁶

이 기록은 靑瓷器와 관련된 내용인데, 남송관요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이다. 사료(C)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이 대목은 근래(“近”)

¹⁴ 단, 張南原은 “高麗新窯皆相類”에 보이는 “高麗新窯”를 “高麗窯와 新窯”가 아니라 “高麗의 新窯”로 파악하고, 그것이 12세기 전반기에 여요의 영향으로 새롭게 제작되기 시작한 품질이 뛰어난 고려청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장남원, 『고려청기 청자 연구』(혜안, 2006), pp. 288-289). 흥미로운 견해라고 생각되지만, 이 詩의 註釋 부분에 “高麗新窯”의 “高麗”와 “新窯”는 각각 “高麗器物”과 “修內司自燒者”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양자는 별개의 요장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¹⁵ 『雲麓漫鈔』에는 開禧 2년(1206)에 쓴 趙彥衛의 自序가 있다([宋]趙彥衛 撰(傅根清 點校), 『雲麓漫鈔』序(中華書局, 1996), p. 2).

¹⁶ [宋]趙彥衛 撰(傅根清 點校), 앞의 책, p. 171: “靑甃器는, 모두 이르기를, 李王에서 비롯되었으며, 秘色으로 칭했다고 한다. 또는 錢王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지금 處州의 龍泉에서 나오는 것은 색이 粉靑이고 越州에서 나온 것은 艾色이다. [唐]陸龜蒙의 <進越器>詩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가을 風露 속에 越窯가 열리니, 千峰의 翠色을 빼앗아 온 듯하구나. 그 越器로 깊은 밤 이슬을 받아 嵇康과 함께 잔을 나누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江南과 錢王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근래 臨安에서도 그것을 自燒하는데, 두 곳을 크게 능가한다.”

임안에서도¹⁷ 청자기를 소조하는데, 그것이 용천요의 粉靑釉瓷器나 월요의 艾色瓷器보다 크게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운록만초』에서는 임안에서 그러한 청자기를 소조하기 시작한 시점을 막연히 근래(“近”)라고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점을 『운록만초』가 완성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로 추정한다.¹⁸ 말하자면, 이 시점부터 임안에서 청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이해한 셈이다. 게다가 이 대목에 주목한 많은 연구자들은 그러한 청자기를 생산한 임안의 요장이 교단하관요라고 주장한다.¹⁹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부터 임안에서 비로소 그렇게 뛰어난 청자기, 즉 관요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요장이 교단하관요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재필형』에 따르면, 임안의 수내사관요에서는 이미 교단하관요에 앞서 그보다 뛰어난 청자기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사료A). 그렇다면 이 경우도, 『백보충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재필형』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

¹⁷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 대목에 보이는 “臨安”이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사어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李剛은 그것이 이 대목의 주어로서 남송의 조정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李剛, 『宋代官窯探索』, 『東南文化』 1期(1996); 『古瓷發微』(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99), p. 116). 이렇게 본다면, 趙彥衛는 이 대목에서 이 요장의 지리적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李剛, 『南宋官窯概論』, 『東方博物』 제46집(2013), pp. 57-58). 그렇지만 “臨安”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먼저, 趙彥衛가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 요장의 지리적 위치를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조언위의 생몰연도(1140~1206년 이후) 등을 고려해 볼 때(傅根清, 『前言』, [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 앞의 책, p. 1) 그는 그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거니와, 이 경우 사료C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록만초』에는 이 대목 이외에도 20여 차례나 “臨安”을 언급하였는데,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모두 지리적 위치를 의미할 뿐 남송의 조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문제의 “臨安”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부사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¹⁸ 井上健太郎, 『南宋修内司官窯の中日(華)見解の相違とその對策』, 『陶說』 188(1968), p. 12; 阮平爾, 『南宋官窯新探』, 『東南文化』 2期(1987), p. 86; 李剛, 『論宋代官窯的形成』, 『東南文化』 6期(1989); 『古瓷新探』(浙江人民出版社, 1990), pp. 101-102; 李民學, 앞의 논문, pp. 50-51; 鄧禾穎, 『南宋官窯探微—對南宋官窯若干問題的回顧與思考』, 『東南文化』 5期(2003), p. 71; 沈岳明, 『低嶺頭類型再認識』,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 85. 단 荒井幸雄은 “近”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荒井幸雄, 『南宋官窯開窯時期に關する一考察』, 『東洋陶磁』 1(1974), p. 51). 그리고 劉毅는 조언위가 사료C를 언제 찬술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劉毅, 『從汝官窯到郊壇下官窯的傳遞』,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 130).

¹⁹ 井上健太郎, 앞의 논문, p. 12; 阮平爾, 앞의 논문, p. 86; 李剛, 앞의 논문(1989), pp. 101-102; 鄧禾穎, 앞의 논문, p. 71; 鄭建華, 『關於修内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 2004), p. 51; 沈岳明, 『“官窯”三題』, 『故宮博物院院刊』 5期(2010), p. 25 참조. 단 李民學는 이 요장을 郊壇窯의 前期에 해당하는 臨安窯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 임안요가 민요로서 남송초기에 개요하였으며, 남송 중엽인 嘉泰 4년(1204)에 수내사관요를 대체하면서 관요(교단하관요)가 되었다고 주장한다(李民學, 앞의 논문, pp. 50-51). 그러나 필자는 수내사관요가 교단하관요로 대체되었다는 가설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내사관요가 교단하관요로 대체되지 않고 두 요장이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병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喜寬, 앞의 논문(2010a); 앞의 논문(2009b)을 참조하라.

된 기록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착오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면,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이다.

이 두 가지 의문과 그 의문으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거니와, 이를 위하여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기록들을 원점에서 다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전체 남송관요 연구의 큰 틀에서 볼 때는 매우 사소한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이 오랫동안 해명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던 상황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남송관요에 대한 이해의 난맥상을 초래한 단초의 하나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 검토가 형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百寶總珍集』 靑器條의 “新窯”와 修內司

『백보총진집』의 靑器條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는 수내사가 설립하고 운영·관리하였다고 파악하며, 그 근거가 靑器條에 “新窯, 修內司自燒者”라고 한 대목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과연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 것일까?

이 대목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新窯”일 것이다. 이것이 신요에서 소소한 자기를 가리키며, 이 신요가 그저 새로운 요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요장을 가리키는 명칭(專稱)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新窯”의 실체에 대하여 최초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아마도 元末明初의 曹昭일 것이다. 그는 『格古要論』 卷下 古窯器論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D) 官窯, 宋修內司燒者, 土脉細潤, 色靑帶粉紅, 濃淡不一, 有蟹爪紋, 紫口鐵足, 色好者與汝窯相類, 有黑土者, 謂之烏泥窯, 偽者皆龍泉燒者, 無紋路.²⁰

²⁰ [明]曹昭 撰, 『格古要論』 卷下 古窯器論,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71冊(臺灣商務印書館, 1986), p. 106: “官窯瓷器는 宋修內司燒者이다. 土質이 좋고, 색은 靑色에 粉紅色을 띠는데, 濃淡이 하나같지 않다. 蟹爪紋이 있으며, 口沿은 紫色이고 굽다리는 검은 색이다. 색이 좋은 것은 汝窯瓷器和 같은 부류이다. 胎土가 검은 것이 있는데, 烏泥窯라고 일컫는다. 假品은 모두 龍泉에서 구운 것으로, 形跡이 없다.”

『격고요론』 官窯條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백보충진집』 靑器條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예컨대, “宋修內司燒者”·“色好者與汝窯相類”·“偽者皆龍泉燒者” 등이 그것들이다. 李仲謨의 정치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의 來源은 『백보충진집』 靑器條가 분명하다.²¹ 『격고요론』의 “宋修內司燒者”는 『백보충진집』의 “修內司自燒者”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흥미로운 것은 『백보충진집』에서는 “新窯”가 “修內司自燒者”라고 한 반면, 『격고요론』에는 “官窯”가 “宋修內司燒者”라고 한 점이다. 이는 곧 조소가 문제의 “新窯”를 “官窯”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官窯”가 남송관요자기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만,²² 조소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新窯”를 남송관요자기로 파악하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수내사관요자기와 교단하관요자기 모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가리키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李仲謨는 『탄재필형』에서 “後郊壇下別立新窯”라고 한 대목에 주목하여 『백보충진집』에 보이는 “新窯”가 곧 우리가 말하는 교단하관요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제출하였다. 즉 “後郊壇下別立新窯”의 “新窯”는 본래 특정한 요장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요장이라는 의미였지만, 후에 교단하관요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³ 흥미로운 견해지만,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였으리라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백보충진집』의 靑器條에는 고종시기에 여요자기와 고려자기 및 신요자기의 가격이 매우 높았다고 되어 있다(“高廟在日曬直錢”). 이는 당시 이것들이 대표적인 청기로서 매우 귀하고 아울러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탄재필형』에 의하면(자료A), 교단하관요자기는 수내사관요자기에 비하여 “大不侔矣”, 즉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⁴ 양자에 대한 『탄재필형』의 평가가 당시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결국 당시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교단하관요자기는 수내사관요자기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시 골동시장의 사정에 밝았을 『백보충진집』의 찬자가 실제로 있어서 여요자기나 고려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적인 청기

²¹ 李仲謨, 앞의 논문, pp. 73-75.

²² 小山富士夫, 「支那靑磁考[二]」, 『陶器講座』 卷3(1935), p. 61; 陳萬里, 『中國靑瓷史略』(上海人民出版社, 1956); 陳萬里, 『陳萬里陶瓷考古文集』(紫禁城出版社, 1997), pp. 133-134; 中國硅酸鹽學會 編, 『中國陶瓷史』(文物出版社, 1982), p. 291; 馮先銘 編著, 『中國古陶瓷文獻集釋』(藝術家出版社, 2000), p. 115; 熊廖 主編, 『中國陶瓷古籍集成』(江西科學技術出版社, 2000), pp. 72-74 등 참조.

²³ 李仲謨, 앞의 논문, p. 76.

²⁴ “大不侔矣”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李喜寬, 「南宋官窯瓷器與「極其精緻」、「油色瑩徹」—有關南宋官窯瓷器的製作技術的幾個問題」, 『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 30期(2011), pp. 35-39 참조.

로 수내사관요자기를 돌려놓고 교단하관요자기를 꼽았을까? 이는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新窯”자기를 제작한 요장으로서 수내사관요를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탄재필형』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의 본래 명칭은 “內窯”였다(사료A). 그러므로 만약 수내사관요가 신요로 불렸다면 그것은 수내사관요의 별칭이 되는 셈이다. 당시 실제에 있어서 수내사관요가 그러한 별칭으로 불렸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당시 하나의 요장이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예컨대 『탄재필형』에 따르면 문제의 수내사관요의 본래 명칭은 “內窯”였지만, 같은 책에서 그것을 “官窯”로 칭하기도 하였다(사료A).²⁵ 그리고 『咸淳臨安志』에서는 그것을 “靑器窯”라고 칭하였다.²⁶

新窯라는 명칭은 舊窯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탄재필형』에서 시간적으로 먼저 설립된 수내사관요를 “舊窯”로 칭한 반면, 뒤에 설립된 교단하관요를 “新窯”로 칭한 것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흔히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보이는 “汝州新窯器”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汝州舊窯器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탄재필형』에서 수내사관요가 “舊窯”로 칭하여지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 요장이 신요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내사관요가 “故京遺製”를 계승하여 설립되었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료A).

“故京遺製”는 휘종 정화연간에 “官窯”를 설립·운영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송관요가 그것이다. 따라서 수내사관요가 “故京遺製”를 계승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은 곧 수내사관요가 북송관요의 맥을 이은 것임을 의미한다. 송대 관요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계승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북송관요는 구요가 되며, 수내사관요는 신요가 되는 셈이다. 이 점을 증시하면, 당시 수내사관요가 신요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보총진집』에 보이는 문제의 “新窯”는 수내사관요자기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백보총진집』의 靑器條에서 “新窯, 修內司自燒者”라고 한 대목은 결국 수내사관요자기가 곧 “修內司自燒者”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²⁵ 사료A의 “餘如烏泥窯·餘杭窯·續窯, 皆非官窯比”에 보이는 “官窯”는 사료A의 전체 내용 속에서 파악해보면, 남송관요, 즉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²⁶ [宋]潛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靑器窯,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中華書局, 1990), p. 3441 및 李喜寬, 앞의 논문(2009), pp. 16-18 참조.

여기에서 “修內司自燒者”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제까지 이 대목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自燒”를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요장을 설립하고 운영·관리한 주체가 바로 수내사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그것이 『탄재필형』의 내용과 상치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런데 “自燒”와 修內司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수내사가 이 요장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自燒”는 소성하는 주체가 자발적, 즉 자의에 따라 무엇을 소성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수내사가 조정이나 특정 관부의 명령에 따라 소성하였다면, 그 경우에 “自燒”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만약 수내사가 수내사관요자기를 “自燒”하였다면, 그것은 곧 수내사가 자유 의지에 따라 수내사관요를 설립하고 운영·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수내사는 궁정의 일을 처리하는 하급관부로서 본래 “皇城內宮省垣宇繕修之事”를 관장하였으며,²⁷ 비교적 관품이 낮은 內侍들이 그 勾當官으로 임명되었다.²⁸ 한편, 『함순임안지』에는 수내사관요가 “靑器窯”라는 명칭으로²⁹ 內諸司條에 동·서·남·북의 4庫와 八作司·敎樂所와 함께 御前內轄司의 아래에 병렬되어 있다.³⁰ 이는 수내사관요가 특정 요장임과 아울러 內諸司에 속한 특정 관부였음을 의미한다. 수내사가 수내사관요자기를 “自燒”하였다는 것은 곧 하급관부인 수내사가 자의적으로 內諸司의 특정한 관부인 수내사관요를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을 것이다. 설사 수내사가 수내사관요의 설립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조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수내사관요를 포함한 남송관요는 조정이나 궁정의 엄격한 관리체제 아래에 있었다. 예컨대, 생산하는 기종과 기형 그리고 그 수량 및 납품기한 등이 조정이나 궁정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생산하여 選品 과정을 통과한 完成品은 원칙적으로 모두 供御하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殘次品들은 모두 깨뜨려 일반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27 [清]徐松輯, 『宋會要輯稿』職官 30之1, 北平圖書館影印本(中華書局, 1957): “提學修內司, 領雄武兵士千人, 供皇城內宮省(殿?)垣宇繕修之事.”

28 예컨대, 紹興 15년(1145) 당시 從8品の 入內侍省東頭供奉官의 職에 있던 內侍 王晉錫이 修內司의 최고 책임자인 提學修內司의 직을 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비교적 下級 內侍들이 修內司의 勾當官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劉未, 앞의 논문, pp. 114-117; 龔延明 編著, 『宋代官制辭典』(中華書局, 1997), p. 369 및 p. 696 참조.

29 『咸淳臨安志』卷10 靑器窯條에 보이는 “靑器窯” 가운데 “雄武營山上”에 위치한 것이 남송후기의 수내사관요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喜寬, 앞의 논문(2009)을 참조하라.

30 [宋]潛說友撰, 앞의 책, p. 3441.

하였다.³¹ 그러므로 설령 수내사가 수내사관요를 운영하고 관리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그 과정에 수내사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내사관요의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보아도, 수내사가 수내사관요자기를 “自燒”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修內司自燒者”를 두고 수내사관요자기를 수내사가 “自燒”하였다는 의미로 파악한 이제까지의 이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문제의 “修內司自燒者”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기한 “修內司自燒者”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관련된 의문과 문제점들은 모두 “修內司自燒者”에서 “修內司”를 “自燒”의 주체로 해석한 데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修內司”를 “自燒”의 주체로 파악하여 수내사라는 관부로 이해하는 한, 수내사관요자기를 수내사가 “自燒”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길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의 “修內司”를 반드시 그렇게 파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파악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³² 이 경우 “修內司自燒者”는 “于修內司自燒者”나 “自燒于修內司者”, 즉 수내사에서 자소한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의 앞에 도치시키는 것은 고대한어에서 흔히 쓰이는 용법이다. 앞서 인용한 사료B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新窯, 修內司自燒者”에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대목, 즉 “自後僞者, 皆是龍泉燒造者”가 그것이다. 이 대목은 일견하여 앞의 “新窯, 修內司自燒者”와 거의 흡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自後僞者”는 “新窯”에, “龍泉”은 “修內司”에, “燒造者”는 “自燒者”에 정확히 대응한다. 이 경우도 “龍泉”이 주어처럼 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적 의미로 해석해야 문맥이 무리 없이 통하게 된다. 즉 “自後僞者, 皆是龍泉燒造者”는 “그 후에 위조한 것들은 모두 龍泉에서 燒造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료C에 보이는 “青瓷器……近臨安亦自燒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도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어인 “臨安”이 동사인 “自燒”의 앞에 도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修內司自燒者”의 “修內司”를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修內司自燒者”의 의미를 수내사관요자기가 “修內司에서 自燒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나

³¹ 李輝炳, 『宋代官窯瓷器』(紫禁城出版社, 1992), pp. 5-6; 沈瓊華, 「真窯、官窯辨」, 『2007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文物出版社, 2008), pp. 55-56; 沈岳明, 앞의 논문(2010), p. 18 참조.

³² 수내사가 지리적 위치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鄭建華가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 鄭建華, 앞의 논문, pp. 54-57 참조.

면, 이 대목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의문과 문제점들이 해소되게 된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自燒”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이 새로운 의문으로 제기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自燒”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오로지 어용자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수내사관요를 설립하고 운영·관리한 주체가 조정이나 궁정일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백보총진집』 靑器條의 수내사관요와 관련된 대목, 즉 “新窯, 修內司自燒者”과 『탄재필형』에 보이는 수내사관요와 관련된 대목, 즉 “置窯于修內司, 造靑器, 名內窯”는 내용상 전혀 상치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新窯”와 “修內司自燒者”가 각각 “內窯”와 “置窯于修內司, 造靑器”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탄재필형』과 『백보총진집』에 보이는 수내사관요와 관련된 기록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검토에 큰 무리가 없다면, 수내사가 직접 수내사관요를 설립하고 운영 및 관리하였다는 견해는 그 중요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수내사관요가 수내사의 관할구역 안에 설립되었지만, 그 설립·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 『함순임안지』에 수내사관요를 가리키는 “雄武營山上”의 “靑器窯”가³³ 수내사가 아닌 御前內轄司에 예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³⁴

Ⅲ. 『雲麓漫鈔』에 보이는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의 신해석

『운록만초』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대목, 즉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는 靑瓷器의 來源 등을 설명하는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대목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이 『운록만초』가 완성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부터 임안에서 비로소 “殊勝二處”의 청자기, 즉 관요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요장이 교판하관요라고 이해하였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의문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殊勝二處”의 청자기를 생산한 임안의 요장이 과연 교

³³ 『咸淳臨安志』 卷10 御前內轄司條에 보이는 “雄武營山上”의 “靑器窯”가 수내사관요라는 점에 대해서는 李喜寬, 앞의 논문(2009) 참조.

단하관요일까 하는 점이다. 만약 그 요장이 교단하관요라면, 『탄재필형』에 그보다 앞서 청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내사관요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³⁵ 존재 하였지만 당시 이미 閉窯되었거나,³⁶ 임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³⁷ 또 다른 하나는 임안에서 그러한 청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과연 『운록만초』가 成稿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 요장의 설립시기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먼저 첫 번째 의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운록만초』에 보이는 “近臨安亦自燒之，殊勝二處”에 주목한 많은 연구자들이 일찍부

34 [宋]潛說友撰, 앞의 책, p. 3441. 단 劉未는 『함순임안지』의 경우와 달리 『夢梁錄』 卷9 內諸司條에는 수내사관요가 포함되어 있는 청기요와 어전내할사가 예측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나열되어 있다는 점과 『함순임안지』 卷10 어전내할사조에 修內司教樂所를 가리키는 教樂所가 어전내할사에 예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순임안지』에 보이는 內諸司 사이의 예측관계에 의문을 표시하고, 아울러 수내사관요가 어전내할사에 예측되어 있었다는 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劉未, 앞의 논문, p. 130). 劉未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에는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몽양록』 卷9 內諸司條는, 『함순임안지』 卷10 內諸司條의 경우와 달리, 그저 內諸司를 열거해 놓은 것이지 內諸司들 사이의 예측관계까지 밝혀놓은 것이 아니다([宋]吳自牧撰, 『夢梁錄』 卷9 內諸司,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590冊(臺灣商務印書館, 1986), p. 78). 그러므로 『몽양록』 卷9 內諸司條를 근거로 『함순임안지』 卷10 內諸司條에 보이는 內諸司들 사이의 예측관계를 비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근거는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는 면이 있다. 수내사교악소는 곧 수내사의 교악소로서, 언제인가 교악소가 수내사에 예측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악소가 수내사에 예측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修內司教樂所”의 경우, 그 대부분이 남송초기 紹興연간(1131~1162)에 있었던 教坊의 혁파와 관련된 기록에 보인다는 점이다. 『몽양록』에 보이는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宋]吳自牧撰, 앞의 책, p. 167: “紹興年間, 廢教坊職名, 如遇大朝會聖節, 御前排當及駕前導引奏樂, 並撥臨安府衙前樂人, 屬修內司教樂所, 集定姓名, 以奉御前供應.”). 교악소가 수내사에 예측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늦은 시기의 기록은 端平 3년(1236)에 趙升이 찬한 『朝野類要』에 보이는 그것이다([宋]趙升撰, 『朝野類要』 卷1 教坊,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854冊(臺灣商務印書館, 1986), p. 107: “今雖有教坊之名, 隸屬修內司教樂所, 然遇大宴等, 每差衙前樂, 權充之……”).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교악소가 수내사에 예측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은 단평 3년까지이다. 그런데 교악소와 같은 하위관부들의 경우, 그 예측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내사에 예측되어 있던 교악소가 단평 3년 이후의 어느 때에 어전내할사가 설립되면서 그 예측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공교롭게도 교악소가 어전내할사가 있던 東華門 밖에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혀준다([宋]潛說友撰, 앞의 책, p. 3441).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함순임안지』에 보이는, 수내사관요가 어전내할사에 예측되어 있었다고 한 점에 의문을 제기한 劉未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35 沙孟海, 「南宋官窯修內司窯址問題的商榷」, 『考古與文物』 6期(1985), pp. 105-106 및 p. 104; 朱伯謙, 「談南宋官窯」, 『中國古陶瓷研究』, 1(1987); 朱伯謙, 『朱伯謙論文集』(紫禁城出版社, 1990), pp. 210-215.

36 李民學, 앞의 논문, pp. 50-51.

37 阮平爾, 앞의 논문, p. 86; 李剛, 앞의 논문(1989), pp. 100-101; 沈岳明, 「修內司窯的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 『中國古陶瓷研究』 4輯(1997), pp. 87-90. 단, 李剛은 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수내사관요를 가리키는 “內窯”가 임안의 만송령 동편 산기슭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李剛, 「內窯、續窯和哥哥洞窯辨析」, 『東方博物』 23輯(2007): 同改題「內窯、續窯和哥哥洞窯索隱」, 『古瓷談薈』(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08), pp. 188-1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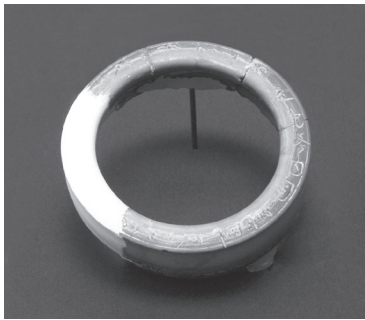


도 1 老虎洞窯址 全景(필자 촬영)

터 이 요장을 교단하관요로 파악한 것은 주로 금세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고고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즉 “殊勝二處”의 뛰어난 자기를 소조한 요장은 필경 관요일 터인데, 그때까지 임안, 즉 오늘날의 항주에서 그러한 관요지가 발견된 것은 교단하관요지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임안에 수내사관요가 있었다는 점에 회의적이었

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던 연구자들이 문제의 요장을 교단하관요로 파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1996년에 항주의 봉황산에서 노호동요지가 발견되고 아울러 1998~200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식 발굴됨으로써³⁸ 그러한 근거는 사실상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도 1).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요지가 곧 수내사관요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³⁹ 이 요지에서 남송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修內司窯置更子年……□□□□□匠師造記”銘의 갖모(蕩箍)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요지가 수내사관요지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 2).⁴⁰ 이 명문에 보이는 “更子年”은 淳熙 7년(1180)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¹



도 2 “修內司窯”銘갖모, 老虎洞窯址 출토(필자 촬영)

수내사관요가 임안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문제의 “殊勝二處”의 청자기를 소조한 요장에서 수내사관요를 제외할 까닭이 없다. 『탄재필형』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에서는 교단하관요에 앞서 그곳에

³⁸ 杜正賢, 「考古隨筆: 南宋修內司官窯的考古發現」, 『故宮博物院院刊』 5期(2010), pp. 132, 135.

³⁹ 秦大樹, 「杭州老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論證會紀要」, 『文物』 8期(2001), pp. 94-95.

⁴⁰ 唐俊杰, 「關於修內司窯的幾個問題」, 『文物』 12期(2008), pp. 61-62; 崔劍鋒·吳小紅·唐俊杰, 「杭州老虎洞窯址出土“修內司窯”銘款蕩箍的化學成分分析」, 『文物』 12期(2009), pp. 87-91.

⁴¹ 唐俊杰, 앞의 논문, pp. 61-62 참조.

서 제작한 자기보다 뛰어난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사료A). 요컨대, 당시 임안에서 “殊勝二處”의 청자기를 생산하던 문제의 요장은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를 모두 아우르는, 즉 남송관요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운록만초』에 보이는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그 책이 완성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에 임안에서 비로소 관요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은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에 임안에서 비로소 관요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운록만초』의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에 보이는 “近”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다. 그들은 그 시간적 범주를 이 책이 완성되기 직전의 몇 년간으로 한정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 것일까? 이것이 앞서 제기한 두 번째 의문이다.

近은 遠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실제 용례에 있어서는 매우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100년 전은 현재를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遠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전체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近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近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시간적 범주가 다르게 마련이다. 각 개인의 언어습관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록만초』에 보이는 이 기록(사료C)의 “近”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찬자인 趙彥衛가 문제의 “近”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였으며, 그의 近에 대한 언어습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운록만초』의 청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쓰여진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 책이 완성된 연도(개희 2년: 1206)와 이 책을 저술한 조언위의 생몰연도(1140~1206년 이후)⁴² 등을 고려해 볼 때, 1206년 이전의 남송 중엽 무렵에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청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청자기의 出自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 越州와 당시 龍泉에서 생산한 청자기의 색깔, 唐의 陸龜蒙의 〈進越器〉詩를 통한 청자기의 출자에 대한 고증, 남송관요자기의 출현과 그 우수성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의 시간적 범주는 당대~남송 중엽이다. 따라서 『운록만초』에 보이는 “近”은 조언위가 그러한 시간적 범주 안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문제의 “近”을 반드시 『운록만초』가 成稿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당대~남송 중엽의 긴 시간적 범주 안에서 보면, 설사

⁴² 傅根清, 앞의 논문, p. 1.

조언위가 수내사관요가 설립된 남송초기를 “近”으로 표현했다고 하여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운록만초』에 실려 있는 조언위의 自序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 『擁鑪閒紀』十卷, 近刊於漢東學宮, 頗有索觀者, 無以應其求, 承乏來此, 適有見版, 併後五卷, 刻諸郡齋, 近有『避暑錄』, 似與之為對, 易曰雲麓漫鈔云. 開禧二年重陽日, 新安郡守趙彥衛景安書於黃山堂.⁴³

조언위는 여기에서 두 차례 “近”字를 사용하였다. “『擁鑪閒紀』十卷, 近刊於漢東學宮”과 “近有『避暑錄』”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漢東學宮에서 『擁鑪閒紀』을 간행한 사실을 전하는데, 漢東은 隨州의 舊名이다. 그는 嘉泰 2년(1202)~4년(1204)에 知隨州를 역임했으므로,⁴⁴ 이 책은 이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 대목에서 조언위는 개희 2년(1206)의 시점에서 2~4년 전을 “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후자는 『피서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피서록』은 [宋]葉夢得이 찬한 『避暑錄話』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피서록』으로 略稱되었다.⁴⁵ 『피서록화』에는 소흥 5년(1135) 6월 11일에 쓴 엽몽득의 自序가 실려 있어 이해에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보다 몇 년 뒤인 소흥 7~8년경의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⁶ 아무튼 소흥 초년경의 작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언위는 이 대목에서 대략 70년 전을 “近”으로 표현한 셈이다. 즉 조언위의 언어습관에서 近은 비교적 긴 시간적 범주 안에서 다양한 시점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에 보이는 “近” 역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로 못 박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운록만초』의 “近臨安亦自燒之, 殊勝二處”를 토대로 하여 임안에서 그러한 “殊勝二處”의 청자기를 생산한 요장이 교단하관요라는 주장이나, 임

⁴³ [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 앞의 책, p. 2: “『擁鑪閒紀』十卷을 近來 漢東學宮에서 간행하였는데, 자못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 수요에 응하지 못하였다. 任官하여 지금에 이르러, 마침 눈에 띄는 목판이 있어, 後五卷을 보태서 여러 郡齋에서 板刻하였다. 근래에 『避暑錄』이 있는데, 그것과 짝이 될 만하여 이름을 고쳐 『雲麓漫鈔』라 하였다. 開禧二年 重陽日에 新安郡守 趙彥衛景安이 黃山堂에서 쓰다.”

⁴⁴ 傅根清, 「趙彥衛生平考索」, [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 앞의 책, pp. 227-228.

⁴⁵ 예컨대, 『清波雜志』에서 『避暑錄』으로 약칭하였다. [宋]周輝撰(劉永翔校注), 『清波雜志校注』卷4(中華書局, 1994), p. 99.

⁴⁶ 『避暑錄話』와 그 저술연대에 대해서는 方建新, 「《避暑錄話》考略」, 『杭州大學學報』3期(1991); 潘殊閑, 「《避暑錄話》—宋代口述史的經典之作」, 『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期(2012)를 참조하라.

안에서 그러한 청자기, 즉 관요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책이 찬술된 개희 2년(1206)보다 몇 년 앞선 해일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雲麓漫鈔』의 해당 대목 역시, 『백보총진집』의 靑器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안의 수 내사관요에서 소흥 32년(1162) 이전에 이미 관요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탄재필형』의 해당 내용(사료A)과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운록만초』의 경우, 『탄재필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IV. 나머지말 —“自燒” 의미의 재음미

남송 중엽경에 찬술된 『탄재필형』과 『백보총진집』 및 『운록만초』는 남송관요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헌으로 꼽힌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각각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내용이 『탄재필형』의 그것과 상치되는 것처럼 이해해왔다. 과연 남송관요가 설립되고 운영되던 시기를 살았던 세 문헌의 찬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남송관요와 관련된 상치된 내용을 남긴 것일까? 필자는 남송관요의 연구를 시작한 이래 줄곧 이러한 의문을 품어왔다. 이 연구는 그러한 오래된 의문을 해결할 요량으로 착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각각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남송관요와 관련된 대목이 『탄재필형』의 그것과 상치되지 않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의 해당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두 기록 모두에 남송관요자기의 소조와 관련하여 굳이 “自燒”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와 유사한 또 다른 예를 찾을 수 있다.

(F) 宋葉寘『坦齋筆衡』云……政和間, 京師自置窯燒造, 名曰官窯.⁴⁷

사료(F)는 『탄재필형』에 보이는 북송관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京師自置窯燒造”인데, “京師”가 당시의 도성인 동경(오늘날의 開封市)을

⁴⁷ [元]陶宗儀撰, 앞의 책, pp. 362-363: “宋葉寘의 《坦齋筆衡》에 말하기를,……政和 연간에 京師에 스스로 요장을 설립하여 燒造하였는데, 이름붙이기를 官窯라고 하였다.”

가리키는 부사어라는 점과⁴⁸ “自置窯燒造”가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自燒”와 동일한 의미일 것이라는 점은⁴⁹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흥미롭게도 세 문헌 모두에서 사실상 自燒라는 말을 사용한 셈이 된다. 그리고 自燒의 대상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모두 관요자기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自燒는 관요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관요자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궁중이다. 그런데 궁중에서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직접 관요(어요)를 설립하여 소조하는 방식(自燒)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예컨대, 지방의 여러 요장에서 제작한 자기를 공납 받거나(土貢) 구매하거나 注文制의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 등이 있었는데, 『운록만초』에 언급된 월요 비색자 등은 土貢의 방식으로, 정요의 경우는 구매의 방식으로, 『백보총진집』 보이는 여요자기 등은 注文制의 방식으로 조달한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생각한다.⁵⁰ 북송말기 이전에는 自燒의 방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문헌 등에 어용자기와 관련하여 自燒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휘종 정화연간(1111~1117)에 북송관요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自燒의 방식이 출현하고, 이때부터 어용자기의 조달과 관련하여 自燒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어용자기와 관련된 自燒의 주체는 조정이나 궁중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세 문헌에 自燒의 주체를 굳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이해해온 바와 달리, 각각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와 『탄재필형』에 보이는 “修內司”와 “臨安”과 “京師”가 관요자기의 自燒의 주체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_남송관요(南宋官窯, Guan kiln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수내사(修內司, Xiu Nei Si), 신요(新窯, Xin kiln), 자소(自燒, Self-manufacturing)

■ 투고일 2014년 8월 2일 | 심사개시일 2014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0월 14일 ■

⁴⁸ 李喜寬, 앞의 논문(2010b), pp. 62-67.

⁴⁹ 본고 제1장 참조.

⁵⁰ 송대 어용자기의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곧 「汝窯의 성립과 그 의의」라는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 史料

- [元]陶宗儀撰,『南村輟耕錄』,中華書局,1959.
- [清]徐松輯,『宋會要輯稿』,北平圖書館影印本,中華書局,1957.
- [宋]吳自牧撰,『夢梁錄』,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590冊,臺灣商務印書館,1986.
- [宋]佚名,『百寶總珍集』,北京大學圖書館藏清鈔本,『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第78冊,齊魯書社,1995.
- [宋]潛說友撰,『咸淳臨安志』,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宋元方志叢刊』第4冊,中華書局,1990.
- [明]曹昭撰,『格古要論』,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71冊,臺灣商務印書館,1986.
- [宋]趙升撰,『朝野類要』,文淵閣四庫全書本,『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54冊,臺灣商務印書館,1986.
- [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雲麓漫鈔』,中華書局,1996.
- [宋]周輝撰(劉永翔校注),『清波雜志校注』,中華書局,1994.

2. 論著

－ 國文

장남원,『고려중기 청자 연구』,해안,2006.

－ 中文

- 唐俊杰,「關於修內司窯的幾個問題」,『文物』12期,2008, pp. 61-68.
- 杜正賢,「考古隨筆:南宋修內司官窯的考古發現」,『故宮博物院院刊』5期,2010, pp. 131-136.
- 鄧禾穎,「南宋官窯探微—對南宋官窯若干問題的回顧與思考」,『東南文化』5期,2003, pp. 69-72.
- 潘殊閑,「《避暑錄話》—宋代口述史的經典之作」,『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期,2012, pp. 45-49.
- 方建新,「《避暑錄話》考略」,『杭州大學學報』3期,1991, pp. 61-69.
- 傅根清,「前言」,[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雲麓漫鈔』,中華書局,1996.
- _____,「趙彥衛生平考索」,[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宋]趙彥衛撰(傅根清點校),『雲麓漫鈔』,中華書局,1996.
- 傅振倫,『《陶說》譯注』,輕工業出版社,1984.
- 沙孟海,「南宋官窯修內司窯址問題的商榷」,『考古與文物』6期,1985, pp. 104-106.
- 龔延明編著,『宋代官制辭典』,中華書局,1997.
- 沈瓊華,「貢窯、官窯辨」,『2007'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文物出版社,2008.
- 沈岳明,「修內司窯的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中國古陶瓷研究』4輯,1997, pp. 84-92.

- 沈岳明,「低嶺頭類型再認識」,『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2004.
- ,「“官窯”三題」,『故宮博物院院刊』5期,2010, pp.16-25.
- 阮平爾,「南宋官窯新探」,『東南文化』2期,1987, pp. 83-87.
- 熊廖主編,『中國陶瓷古籍集成』,江西科學技術出版社,2000.
- 劉未,「邵諤、王晉錫與修內司窯」,『故宮博物院院刊』5期,2010, pp. 111-130.
- ,「從汝官窯到郊壇下官窯的傳遞」,『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2004.
- 李剛,「論宋代官窯的形成」,『東南文化』6期,1989, pp. 141-146.
- ,『古瓷新探』,浙江人民出版社,1990.
- ,「宋代官窯探索」,『東南文化』1期,1996, pp. 106-112.
- ,『古瓷發微』,浙江人民美術出版社,1999.
- ,「內窯、續窯和哥哥洞窯辨析」,『東方博物』23輯,2007, pp. 480-493.
- ,「內窯、續窯和哥哥洞窯辨析」,『古瓷談薈』,浙江人民美術出版社,2008.
- ,「南宋官窯概論」,『東方博物』46輯,2013, pp. 50-60.
- 李民舉,「宋官窯論稿」,『文物』8期,1994, pp. 47-54.
- 李仲謨,「汝窯史料研究二則」,『中國古陶瓷研究』7輯,2001, pp. 73-83.
- 李輝炳,『宋代官窯瓷器』,紫禁城出版社,1992.
- 李喜寬,「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故宮博物院院刊』3期,2009, pp. 6-23.
- ,「南宋前期官窯新探」,『東方博物』35輯,2010a, pp. 26-38.
- ,「北宋官窯與“京師”及“惟用汝器”—北宋官窯研究序說」,『故宮博物院院刊』5期,2010b, pp.55-72.
- ,「南宋官窯瓷器與「極其精緻」、「油色瑩徹」—有關南宋官窯瓷器的製作技術的幾個問題」,『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30期,2011, pp. 35-82.
- 鄭建華,「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南宋官窯文集』,文物出版社,2004.
- 朱伯謙,「談南宋官窯」,『中國古陶瓷研究』1輯,1987, pp. 10-13.
- ,『朱伯謙論文集』,紫禁城出版社,1990.
- 中國硅酸鹽學會編,『中國陶瓷史』,文物出版社,1982.
- 秦大樹,「杭州老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論證會紀要」,『文物』8期,2001, pp. 93-96.
- 陳萬里,『中國青瓷史略』,上海人民出版社,1956.
- ,『陳萬里陶瓷考古文集』,紫禁城出版社,1997.
- 崔劍鋒·吳小紅·唐俊杰,「杭州老虎洞窯址出土“修內司窯”銘款蕩籜的化學成分分析」,『文物』12期,2009, pp. 87-91.
- 馮先銘編著,『中國古陶瓷文獻集釋』,藝術家出版社,2000.

- 日文

小山富士夫, 「支那青磁考[二]」, 『陶器講座』3卷, 1935, pp. 55-117.

井上健太郎, 「南宋修内司官窯の中日(華)見解の相違とその對策」, 『陶説』188, 1968, pp. 11-22.

荒井幸雄, 「南宋官窯開窯時期に關する一考察」, 『東洋陶磁』1, 1974, pp. 49-57.

국문초록

많은 연구자들은 남송관요와 관련된 송대의 문헌 가운데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고 아울러 풍부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坦齋筆衡』을 꼽는다. 우리는 이 문헌을 토대로 남송관요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다. 남송 소흥 32년(1162) 이전에 임안의 수내사영내에 “內窯”(수내사관요)를 설치하였으며 그것을 주도한 관부가 後苑(郡局)이었다는 점과 수내사관요에 뒤이어 교단하관요를 설치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남송중기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백보총진집』 卷9 靑器條에 “新窯, 修內司自燒者”라고 한 대목을 근거로 남송관요 또는 교단하관요를 설립·운영한 관부가 수내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趙彥衛가 찬한 『운록만초』에 “靑器, ……近臨安亦自燒之”라고 한 대목에 보이는 “近”에 주목하여 임안에 관요를 설립한 것이 『운록만초』가 완성된 1206년보다 몇 년 앞선 때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의 설립을 주도한 관부가 후원(소국)이라는 점도, 1162년 이전에 임안에 관요가 설립되었다는 점도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의 해당 대목의 의미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백보총진집』의 해당 대목은 그들이 이해한 것과 같이 남송관요자기가 수내사가 “自燒”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수내사(영)에서 “自燒”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운록만초』의 “近”은, 近의 본래적인 의미와 조연위가 사용한 “近”의 용법 등을 통하여 볼 때, 1206년보다 몇 년 앞선 때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긴 시간적 범주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보이는 해당 대목은 『탄재필형』의 남송관요 관련 기록과 거의 동일한 사실은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보총진집』과 『운록만초』에 근거하여 『탄재필형』에 보이는 남송관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까닭이 없다.

Discrepancy or Accord?:
Reassessment of Records on Official Kiln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Baibao zongzhenji* and *Yunlu manchao*

Lee Hee-gwan *

Many scholars consider the *Tanzhai biheng* (坦齋筆衡) as the most valuable source for official kiln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among the contemporaneous literatures. Based on this book, it is possible to infer a few essential facts about official kilns of the period. Prior to 1162 in the Southern Song, for instance, the official kiln was installed within the Xiuneisi (修內司) in Linan (臨安). This project appears to have been led by a bureau called Houyuan (後苑), also known as Shaoju (邵局), and later the Jiaotania official kiln (郊壇下官窯) was also built.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it was Xiuneisi that took charge of the building of official kilns in the Southern Song or the Jiaotania official kiln, referring to a passage that reads “*Xinyao Xiuneisi zishaozhe* (新窯修內司自燒者)” in Chapter 9 of the *Baibao zongzhenji* (百寶總珍集),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in the mid-Southern Song. Other scholars cite a Chinese character “*jin* (近 proximity)” in a passage that reads “*Qingciqi* *jin Linan yizishaozhi* (青瓷器 近臨安亦自燒之)” in the *Yunlu manchao* (雲麓漫鈔) written by Zhao Yanwei (趙彥衛) within a similar timeframe, and assert that official kilns were built in Linan only several years ahead of the completion of the *Yunlu manchao* in 1206. These arguments refute the aforementioned contentions that the building of the Xiuneisi official kiln was led by Houyuan (or Shaoju) and that official kilns were built in Linan earlier than 1162. Nevertheless, the arguments of the second group of researchers appear to be attributed to a

* Former chief curator, Horim Museum

misunderstanding on the actual meanings of the relevant passages in the *Baibao zongzhenji* and the *Yunlu manchao*. In the *Baibao zongzhenji*, the word “*zishao* (自燒)” does not mean that Xiuneisi itself built and managed official kilns, but that official wares were fired in the kiln within the jurisdiction of Xiuneisi. Moreover, the character “*jin* (近)” in the *Yunlu manchao* implies a far broader range of time than just a few years prior to 1206, considering the original meaning and the author’s usage of the character. In this regard, the passages in the *Baibao zongzhenji* and the *Yunlu manchao* demonstrate almost the same historical facts as the records related to official kiln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as described in the *Tanzhai biheng*. Based on the explanation in the *Baibao zongzhenji* and the *Yunlu manchao*, therefore, there is no ground to doubt the reliability of the records in the *Tanzhai biheng*.